

7/10/16

설교 제목: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도행전 10:1-22, 44-48

- (행 10: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 (행 10: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절관주** 행 3:1
- (행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 (행 10: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 (행 10: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절관주** 행 9:43, 행 11:14
- (행 10: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 (행 10:8)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 (행 10: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 (행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 (행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 (행 10: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 (행 10: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절관주** 레 11:29, 레 11:30, 겔 4:14
- (행 10: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절관주** 롬 14:14, 고전 10:25, 딤후전 4:4

- (행 10: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 (행 10: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절관주 욥 11:7, 롬 11:33, 행 10:8
- (행 10: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절관주 행 10:6
- (행 10: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 (행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 (행 10: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 (행 10: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절관주 마 2:12, 행 11:14
-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 (행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 (행 10: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 (행 10: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 (행 10: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 권중에 단 한 권 뿐인 역사서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특별히 중요한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스테반 집사의 순교, 바울의 회심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꼽는데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한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태동을 알리는 기독교 역사상 획기적인 선을 그은 사건입니다.

- (행 10: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Caesarea, 케자르, 시저)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라 명명된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도시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 로마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고넬료는 이곳에 상주하고 있던 로마 군대 이달리야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야 부대는 약 6000 명 정도로 구성된 사단이고 고넬료는 그 부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아래 치안과 행정 전반을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란 지위는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 식민지화 시키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며 지배하는 조국 로마의 짓거리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반항없는 신에 대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의 종교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유대교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유대교 교훈을 따르고 유대교 신앙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fearer)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를 따르고 구제도 많이 하여 유대교를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는 고넬료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토록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고넬료는 분명 의인이고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구제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를 입지 않은 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넬료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제와 봉사에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구원 받은 척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해 살지 말고 자신에게 정직하고 실속있게 삽시다.

그런 것들은 종국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고넬료와 온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행 10: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행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행 10: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행 10: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에서 본 지시대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들이 욥바에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마침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행 10: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행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행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행 10: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행 10: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행 10: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행 10: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이 열리며 내려온 그릇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된다고 금한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과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유대인인 베드로는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기를 세 번씩이나 반복한 뒤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속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예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고정 관념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들이 닦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 10: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행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 10: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갑니다.

(행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 10: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 가진 자나 권력 못 가진 자나, 부를 가진 자나 부를 가지지 못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못난 자나, 얼굴이 예쁜 자나 못생긴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나 자신을 돌아 봅시다.

혹시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요?

남녀노소, 지식 유무, 재산 유무, 사회적 지위, 직업 등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가족, 그리고 거기에 모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에 모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행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즉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행 10: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이 명백한 사건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이나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같은 죄인도 살려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죽기까지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죽기까지 보답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